

불교와 기독교 둘이 아니다?



보살예수
길희성 지음
현암사 | 8천5백원

“예수님이 보살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길희성(61) 서강대 명예교수의 ‘예수가 보살’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군다나 불교와 기독교라는 두 세계종교가 막상 막하게 세력으로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철저한 무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불헌’ 발언이나 정장석 포항시장의 ‘포항시 성시화’ 등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발언으로 종교 간 갈등이 고조되었던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는 성급한 ‘화합 시도’로도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반평생 불교를 연구해 온 ‘종교다원주의자’ 길희성 교수는 최근 출간한 <보살예수>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창조적 만남’을 모색하고자 한다. 길 교수는 인간 붓다와 인간 예수, 열반과 하느님나라, 공(空)과 하느님, 자력과 타력 등 두 종교를 관통하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책은 지난해 초 새길기독교문화원이 주최한 일요신학강좌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란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반평생 불교 연구해 온 기독교인 길희성 교수

두 종교 핵심 짚어내며 화합 협력의 길 모색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이로움(自利)과 타인의 이로움(利他)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살의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분입니다. 종교혼합주의라거나 불(不)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단지 세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공부와 진지한 사색의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종교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교갈등의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길희성 교수는 <보살예수>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과 사회 공동선 실현을 촉구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조계사가 내건 성탄축하 플래카드.

길 교수의 ‘확인’은 자신의 학문적 행보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기독교가 모태신앙인 길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재학시절 故 김동화·이기영 교수의 강의를 듣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

리적으로만 공존할 뿐, 정신적으로는 상호 무관심이나 무시 속에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종교갈등의 도화선으로 지적한다. 두 종교가 서로간의 창조적 만남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상을 심화할 소중한 기회를 놓친 채, ‘상호 무시’의 상태에만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무지가 결국 종교갈등과 대립을 낳기 전에, 종교간에 서로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평화와 지혜의 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방법이라고 길 교수는 말한다.

길 교수는 책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서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화합해야 하며, 이 만남은 사회정의나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우리 사회의 공동선(共同善) 실현이나 사회적 이해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전제로 한 실천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마음 바로 보면 삶이 달라져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마련이다. 하지만 달라야 라마와 라마 수리아 다스는 ‘좀 더 많이 버리고 명상을 하라’고 조언한다. 최근 출간한 <마음>과 <상실>에서 이들은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은 달라야 라마가 1979년부터 81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 세계종교회의, 사원 등에서 가졌던 강연을 풀어 엮은 책이다. 그는 ‘지혜와 자비심의 조화’, ‘내면의 변화와 중용’, ‘세계 종교간의 이해와 조화’ 등을 주제로 인류 모두에게 자애와 사랑과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또한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에 욕심을 낸다면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잠재적인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 명상과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태생으로 티베트불교에 귀의한 라마 수리아 다스는 <상실>에서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자아와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명상을 통해 집착하는 것들을 놓아버릴 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충고한다.



마음
달라야 라마 지음
제프리 홀킨스 역
나혜목 옮김
르너무 | 1만원

상실
라마 수리아 다스 지음
진우기 옮김
푸른숲 | 9천8백원

현직 판사가 풀어 쓴 반야심경

지난 2003년 <육조단경 읽기>를 발간해 ‘경전 쉽게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윤수 파주시법원 판사가 이번엔 <반야심경·금강경 읽기>를 펴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본 경전인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뜻을 풀이하고자 하는 이 책에서 지은이는 전체 분량의 절반인 220여 페이지를 불교 기초 교리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교의 근본 원리를 보는 반야심경·금강경 읽기’라는 책의 부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은이는 “대승불교의 전통에 속해 온 우리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러한 경전의 뜻을 알기 쉽지 않다”며 “이미 수천 종의 주해서가 나와 있지만 입문자로 하여금 쉽고 정확하게 불교를 이해하도록 해 주는 안내서를 찾기 어려운 책을 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반야심경>에 나타나는 오온, 고집멸도, 열반 등 대부분의 용어는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용어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 없이 경의 진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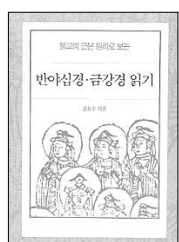
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이해한다면 <반야심경>의 ‘공(空)’이나 <금강경>의 ‘무상(無相)’ 등의 핵심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전 편집의 진정한 의도도 읽을 수 있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1부 ‘불교의 전개와 반야경전’과 2부 ‘근본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먼저 불교의 성립과 그 전개과정 그리고 반야경전의 성립과정을 살펴본 후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이해에 필요한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3부 ‘반야심경 읽기’와 4부 ‘금강경 읽기’에서는 경의 구성과 제목의 의미, 판본, 경전 각 구절마다의 세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지난해부터 파주시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반야심경·금강경 읽기
김윤수 지음
마고북스 | 1만8천원



인터넷 타고 온 붓다의 가르침



메일 아침 컴퓨터를 켜자마자 시작되는 ‘스팸 메일(전자 메일을 이용한 광고)’과의 전쟁. 그 지루하고 소모적인 전쟁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 있는 이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면, 정은 스님(법명: 선하원) 주지 사신이 보낸 ‘붓다의 메시지’가 아닌지 확인해보자.

2000년부터 5년째 매주 한 번씩 이메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이 그동안 보낸 메일 내용과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맨발의 붓다>를 펴냈다. 지난 2002년 선보인 <붓다의 메시지>가 도약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메일 모음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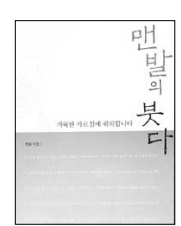
비구니 스님이 보낸 메일이라고 해서 온통 ‘불교’ 이야기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니련 선하원에서 독서모임을 이끌고 있을 만큼 책

읽기를 즐기는 스님은 <법구경>이나 <아함경>, <보왕삼매론> 등의 경전을 비롯해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나 푸쉬킨의 <깃수심지>에 성경구절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통해 생각 해볼 거리를 던져준다.

글 말미에는 초심자를 위해 각주를 두어 인용문의 출처와 ‘업’, ‘팔정도’ 등의 불교용어를 소개하고 있어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능한 철저히 경전에 입각해 쓰되, 너무 경직되지 않으며 인간적인 풍모가 갖는 향기 토음을 담아내고 싶었다”는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어떻게 삶과 대화롭게 여유롭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이를 이메일에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맨발의 붓다
정은 스님 지음
무우수 |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계방역시아문집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용서 | 달라야라마 | 오래된미래 |
| 2 | 오래된미래 | 한경해 | 반디미디어 |
| 3 | 禪 너는 누구나 | 현대불교신문 | 여시아문 |
| 4 |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 아이슈미트 | 꿈꾸는돌 |
| 5 | 영가천도 | 우룡 스님 | 효림 |
| 6 | 일부러행론 | 산티데바 | 하얀연꽃 |
| 7 | 이만사만 회암경 | 성범 스님 | 정신세계원 |
| 8 |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 정화 스님 | 이른아침 |
| 9 |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 청화 스님 | 이른아침 |
| 10 |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 소운 스님 | 도솔 |

도서 안내: (02)737-0695

바로바로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자!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놓는 환단고기.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건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한문제연구소가 제시한 환단고기의 인복으로 바로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히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속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땅·가게·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교제·결혼·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30,000원
적천수형의(上·下) 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음, 화, 수) 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풀러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민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최근 이혼을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운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동원 601175-52-016521

연락처 (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민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주요 수록내용

● 공학이 이야기
● 성가 바보가 만들어요
●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 의처증 이야기
● 바둑 놓고 생각하기
● 실수의 흥취
● 제재와의 불륜
● 육체란 무엇인가?
● 인사이야기
● 성형수술이야기
●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 세 번 결혼한 검사님
● 인태와 세스의 비밀
●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 자신의 처지를 절저히 인정하라
●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생으로 읽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생명학-누구나 이들을 지을 수 있다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날짜로 손(손상) 보는 법 ▶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